



신부님은 늘 성경읽기를 너무 강조하십니다.
꼭 성경을 읽어야만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제 주장의 요지는 바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는 것이니까요. 사도 요한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 · ·)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 ·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곧 하느님의 뜻이며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밝힙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을 보고 또 봐도 자꾸만 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관계로 맺어진 ‘커플’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애가 타야 마땅합니다. 사랑은 오매불망 그 사람만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듯 성경읽기는 사랑하는 주님과 ‘데이트’입니다. 사랑하기에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데이트 신청에 응하는 일입니다. 이 지순한 사랑의 행위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일지요? 성경을 읽으며 매일 사랑을 확인하는 주님의 연인이 되기 바랍니다. 멀지 않은 날, 주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자비에 대한 노래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장 ‘주 하느님 크시도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오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머무소서!
-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자비하신 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103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03, 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라.
- 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 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 3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 4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
- 5 그분께서 네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 주시어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 6 주님께서서는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들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신다.
- 7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셨다.
- 8 주님께서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 9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며
- 10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또한,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비를 실천한 적이 있다면 각자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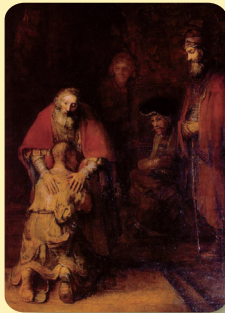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 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느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아름다운 글방’ 중에서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날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장 ‘주 하느님 크시도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작지만 강한 본당 |

- 용잠본당 4구역 3반 이옥희 사비나 -

저희 용잠본당은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창원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명례공소 출신의 두 가정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복음화의 씨앗이 뿌려졌으나 공소를 세우기에는 부족한 교세여서 신자 가정에 모여 공소에 절을 해나갔습니다. 이후 교구에서 현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신자들이 기금을 모금하여 1996년 신자들이 직접 지은 지역 최초의 경당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동본당 소속으로 지내오다 1998년 1월 20일 용잠 준 본당승격을 거쳐 이듬해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하느님의 도우심과 신부님, 신자들의 노력으로 2005년 6월 26일 새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당시 신자수가 120명이었으나 현재 250여 명의 신자가 미사에 참여하고 있고 평균 연령이 50-60대로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본당입니다.

용잠본당 소공동체는 4구역 1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 구역장 모임은 매월 넷째 주일 미사 후에 가집니다. 매주 구역별로 미사안내, 주차장 청소, 미사 중 신자들의 기도를 하며 매월 셋째 주일에는 환자 교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일에는 가족 미사를 봉헌하며 각 반에서는 어려운 이웃돌보기와 냉담교우 권면, 외인 권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 독려 속에 성경읽기와 쓰기,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여 지난해에는 성경필사 최우수 본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당의 날에는 구역별 대항 체육대회, 장기자랑, 성탄예술제, 연도대회 등 모든 활동들이 구역을 통해 전 신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 중 어느 누구도 소외된 분들이 없다는 것이 저희 본당의 자랑입니다.

지난 해 6월에는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팔용산으로 지역 분과 가족등반 1일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봉사는 가족들의 희생 없이 불가능하기에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 마련한 자리였지만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무척 좋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자주 갖기로 하였습니다.

작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끈끈하게 결합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각자 주어진 봉사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각 구역장님과 반장님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용잠본당 모든 구성원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